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4, April 30 (2023), pp.497-506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4.39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Return of Higher Education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률 차이 분석

Soo-Kyung Kim[1]

김수경[1]

[1]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Pyeongtaek University, South Korea, kimsk@ptu.ac.kr*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economic differences on the economic return of higher education, and seek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direct education costs, indirect education expenses, and post-college income according to the method of financing college tui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language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certificate preparation, and exam preparation by method of financing for university tui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p<0.05$ level.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post-employment wages by tuition financing method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 = 0.000$. Third, post-graduation wages were correlated with language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certificate preparation, and exam preparation at the $p<.05$ level as optional private education expenses during enrollment. Fourth, the economic rate of return on higher education calculated based on this research analysis method was derived in the range of 28.5%~29.8% for vocational colleges and 38.0%~38.9% for general colleges. Fifth, the return on the general versus parent type, which had a relatively high investment in selective private education, was high. Fifth, each type of parent was investing relatively high levels in language training and certification fees, which in turn led to higher educational income.

Keywords: University Tuition Financing Method, Direct Education Expenses, Indirect Education Expenses, Education Income, Education Return

요약: 이 연구는 개인의 경제적 차이가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대학졸업 후 수입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준비비, 시험준비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등록금 조달 방식별 취업 후 임금칙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셋째, 졸업 후 임금은 재학 중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준비비, 시험준비비의 선택적 사교육비와 통계적 상관성을 보였다. 넷째, 선택적 사교육비 중 어학연수비 투자가 높았던 일반대학의 '부모' 방식 수익률이 38.9%로 가장 높았다. 다섯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모두 '부모' 방식에서 어학연수비, 자격증비에의 투자가 높았고, 이는 결국 높은 교육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핵심어: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수입, 교육수익률

Received: December 03, 2022; 1st Review Result: January 17, 2023; 2nd Review Result: February 19, 2023
Accepted: March 31, 2023

Copyright ⓒ 2023 KCTRS

1. 서론

고등교육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육의 비용은 직접 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합으로 계산된다. 한편 대학교육의 경제적 수익률은 대학교육을 받은 개인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에 비해 졸업 후 임금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여기에서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으로, 고정비용과 실질적 비용의 성격을 갖고,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비용이라 할 수 있다[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민간부문의 대학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구조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상황은 대학 선택과 대학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2]. 즉,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대학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왔다[3].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이 크게 확대되면서 2021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비율은 73.7%에 이르고 있다[4]. 이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수 엘리트교육으로 대학교육을 규정하여 대학등록금을 개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며, 오히려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대학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학교육 수혜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왔다[5-7]. 이러한 변화에서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대출 ICL 제도 등을 도입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크게 확충해 왔다[8].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제도는 그간 대학교육비의 사부담 분야를 정부의 공부담 영역으로 부담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등록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비용-수익의 경제적 수익률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정부의 공부담 교육비가 대폭 확대된 이후로 고등교육의 수익률을 접근하는 연구는 대학졸업자의 취업 후 받는 임금, 즉 고등교육의 수익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개인의 경제상황 차이와 고등교육 수익률 간의 관계에 분석된 연구는 미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인해 대학교육 비용에서의 개인 차이는 감소하였으며, 결국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서 고등교육의 수익률이 산출될 수 있다는 믿음이 검증없이 수용되어 왔다[9][10]. 그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졸업자의 '취업양극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대학졸업자의 대학등록금 조달방식의 차이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선택적 사교육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취업 후 수입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제적 차이와 대학생활의 성과와의 맥락에서 고등교육의 수익률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다.

이 연구는 개인의 경제적 차이가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는 대학생 개인이 갖는 경제적 차이의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과 재학 중 어학연수, 직업훈련,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에 개인의 선택적 투자, 취업 후 수입 차이의 관련성을 밝혀내고,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실질적 대학교육 수익률을 산출고자 하고자 한다.

Copyright ⓒ 2023 KCTRS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1 연구내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인 부모 방식, 장학금 방식, 학자금대출방식, 본인 방식에 따라 직접교육비 중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선택적 사교육 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둘째,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 취업 후 임금 수입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셋째,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선택적 사교육비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임금 수입과의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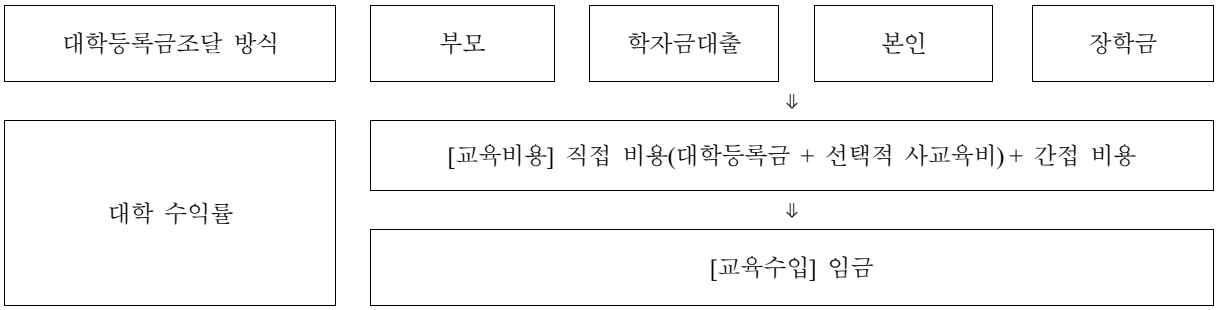
넷째,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는 어떠한가?

다섯째,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고등교육 수익률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분석모형 및 연구방법

2.2.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 때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부모' 방식, 장학금으로 조달하는 '장학금' 방식, 학자금 대출로 조달하는 '학자금대출' 방식, 이외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본인 수입으로 조달하는 '본인' 방식으로 그룹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대학 수익률 차이 분석 모형

[Fig. 1] Model of Difference in College Returns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2.2.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에서 학자금대출 데이터를 수집 및 공개한 최근 202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11]. 2019년~2020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 중 대학등록금 100%를 1가지 방식으로 조달하고, 졸업 후 첫 취업에서 급여를 받는 4,947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때 편입학, 대학원대학, 1,000만원 이상의 월소득으로 응답한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GOMS 2022 데이터 중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직업훈련,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에 투입한 비용, 첫 직장 취업에서 받은 연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학등록금과 장학금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간접교육비

Copyright ⓒ 2023 KCTRS

산출을 위한 비진학 고졸자 초임 평균연봉 데이터는 YP09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Statistcs 25.0을 활용하였다.

[표 1] 비용-수입 구성 및 데이터 출처

[Table 1] Cost-Income Composition and Data Sources

비용-수입		구성 내용	데이터 출처
직접 교육비	실질 대학등록금	3년 연간 평균 등록금과 평균장학금의 차	2020~2022 대학알리미
	선택적 사교육비	GOMS 2022 데이터에서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직업훈련, 자격증준비, 시험준비에 개인 선택에 따라 투입한 비용의 합 / 교육기간	GOMS 2022
간접교육비		{비진학고졸자초임 평균연봉 * (교육기간 연단위 환산값+구직기간 연단위 환산값)} / 평균 교육기간	2022 YP09
교육수익		대졸자 첫 직장 취업에서 받은 연봉- 비진학고졸자초임 평균연봉	GOMS 2022
수익률		교육수익/(직접교육비+간접교육비)*100	계산식

3. 연구결과

3.1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비용-수입의 차이

3.1.1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선택적 사교육비의 차이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 선택적 사교육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부모, 학자금대출, 본인, 장학금)과 어학연수, 직업훈련, 자격증준비, 시험준비에 참여하는 수와 투자한 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어학연수비(F=12.622), 자격증준비비(F=4.686), 시험준비비(F=8.079) 간의 차이는 $p<0.005$ 수준에서, 직업훈련비에서는 등록금 조달 방식 간 차이(F=0.825)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분석되었다.

[표 2]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선택적 사교육비

[Table 2] Selective Private Education Costs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구분	응답자(명)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비			시험준비비		
		참여자(명)	참여율(%)	평균비용(만원)	참여자(명)	참여율(%)	평균비용(만원)	참여자(명)	참여율(%)	평균비용(만원)	참여자(명)	참여율(%)	평균비용(만원)
부모	2,839	210	7.4	915	122	4.3	50	1,121	39.5	364	451	15.9	55
장학금	1,584	93	5.9	683	67	4.2	39	759	47.9	325	311	19.6	54
학자금	371	20	5.4	673	21	5.7	39	146	39.4	350	53	14.3	53
본인	153	4	2.6	693	8	5.2	38	60	39.2	352	13	8.5	53
F값		12.622(0.000)			0.825(0.479)			4.686(0.003)			8.079(0.000)		

어학연수 참여율은 '부모' 방식, '장학금' 방식, '학자금대출방식', '본인' 방식 순으로 높았다. 높은 어학연수비용을 지불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일반대 '부모' 방식에서의 어학연수 참여율과 평균비용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직업훈련 참여율은 대체로 저조했으며, '학자금', '본인', '부모', '장학금' 순으로 높았으나, 직업훈련비용은

Copyright ⓒ 2023 KCTRS

‘부모’ 방식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자격증 준비의 참여율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장학금’ 방식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학자금’ 방식에서 높은 자격증 준비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험준비의 경우 전문대와 일반대 간의 참여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시험준비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3.1.2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교육수입의 차이

등록금 조달방식에 따라 교육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부모, 학자금대출, 본인, 장학금)과 취업 후 임금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취업 여부(F=10.862), 정규직 여부(F=6.109), 취업 후 임금(F=41.942) 간의 차이는 p=0.00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3]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첫 취업 후 임금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Wages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구분	부모	장학금	학자금대출	본인
임금	2,669만원	2,664만원	2,665만원	2,674만원
F값	55.619***(0.000)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첫 취업 후 임금을 살펴보면, ‘본인’ 방식이 2,67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부모’ 방식, ‘학자금대출’ 방식과 ‘장학금’ 방식 순으로 분석되었다.

3.1.3 선택적 사교육비와 교육수입과의 상관성

직접교육비 중 선택적 사교육비와 교육수입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준비비, 시험준비비는 모두 취업 후 임금과의 상관성에서 모두 $p<.05$ 수준에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4] 선택적 사교육비와 취업 후 임금과의 상관 분석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ective Private Education Costs and Wages

선택적 사교육비	취업 후 임금	
	Pearson상관	유의확률
어학연수비	.028***	.001
직업훈련비	-.022**	.009
자격증준비비	.088***	.000
시험준비비	-.062***	.000

3.2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률 차이

3.2.1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직접교육비의 차이

2019년~2021년 3년간 평균 대학등록금은 전문대학이 592만원, 일반대학이 673만원으로 산정된다. 동일 기간의 평균 장학금이 전문대학 355만원, 일반대학 332만원으로 분석된 바, 직접 부담하는 대학교육비는 대학등록금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문대학이 연 237만원, 일반대학이 연 341만원이다. 이는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Copyright ⓒ 2023 KCTRS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선택적 사교육비는 재학 중 투자한 총 사교육비를 교육년수로 나눈 값이다. 전문대학은 145만원~171만원, 일반대학은 281만원~353만원으로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로의 선택적 사교육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대는 부모 방식(171만원), 본인 방식(167만원), 학자금 방식(151만원), 장학금 방식(145만원) 순이었으며, 일반대는 부모 방식(353만원), 학자금 방식(290만원), 장학금 방식(289만원), 본인 방식(281만원)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전문대의 경우 자격증비용이 일반대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고 특히 부모 유형에서 두드러졌다. 어학연수비와 시험준비비는 일반대가 전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부모 유형에서의 어학연수비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만 직업순련비는 크게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직접교육비는 실질 대학등록금과 선택적 사교육비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결국 선택적 사교육비의 차이가 직접교육비의 차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직접교육비는 전문대, 일반대 모두에서 부모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5]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직접교육비의 차이

[Table 5] Direct Education Expenses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구분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	응답자(명)	실질 대학 등록금(만원)	선택적 사교육비(만원)					직접교육비 (만원)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비	시험준비비	소계	
전문대	부모	597	237	71	8	88	5	171	408
	장학금	375	237	52	7	82	5	145	382
	학자금	116	237	59	7	81	5	151	388
	본인	74	237	74	7	83	4	167	404
일반대	부모	2242	341	262	11	64	15	353	694
	장학금	1209	341	205	9	60	16	289	630
	학자금	255	341	197	9	69	16	290	631
	본인	79	341	194	9	62	16	281	702

* 대학등록금과 선택적 사교육비는 1년 기준임

3.2.2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간접비의 차이

고등교육의 간접교육비는 22년 기준 비진학고졸자초임평균연봉 1,755만원에 평균 교육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을 곱한 후 다시 교육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비용이다. 이 때 교육기간과 구직기간의 합은 전문대가 4.3년(부모 유형 4.5년), 일반대가 6.27년(부모 유형 6.47년)이었으며, 부모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 유형의 간접교육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산출되었다.

전문대학의 간접교육비는 경우 장학금 방식, 학자금 방식, 본인 방식은 1,935만원으로 동일한 반면 부모 방식은 2,025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일반대의 간접교육비 또한 장학금 방식, 학자금 방식, 본인 방식은 1,897만원으로 동일하였고, 부모 방식은 1,958만원으로 분석되었다. 부모 방식의 간접교육비가 다른 방식의 간접교육비에 비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긴 교육기간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된다.

Copyright ⓒ 2023 KCTRS

[표 6]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간접교육비의 차이

[Table 6] Indirect Education Expenses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구분	비진학고졸자초임 평균연봉(만원)	평균 교육기간(년)	평균 구직기간(년)	교육기간+구직기간(년)	간접교육비(만원)
전문대	1,755	3.90	0.50	4.40	1,980
일반대	1,755	5.80	0.57	6.37	1,927

3.2.3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졸업 후 교육수입의 차이

졸업 후 교육수입은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을 의미한다. 전문대는 2,429만원~2,466만원 범위에서 교육수입이 발생하고, 일반대는 2,728만원~2,774만원의 범위에서 교육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받게 된 연봉과 비진학고졸자초임의 차이를 교육수입으로 볼 때, 전문대 교육수입은 674만원~711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일반대 교육수입은 973만원~1,019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대 교육수입은 부모 유형(706만원), 본인 유형(711만원), 장학금 유형(689만원), 학자금 유형(674만원) 순이었으며, 일반대는 부모 유형(1,019만원), 본인 유형(983만원), 장학금(976만원), 학자금(973만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대와 일반대가 동일하게 부모 유형, 본인 유형, 장학금 유형, 학자금 유형 순으로 교육수입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졸업 후 교육수익의 차이

[Table 7] Economic Income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구분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	수입(만원)	교육수입(만원)
전문대	부모	2,460	706
	장학금	2,444	689
	학자금	2,429	674
	본인	2,466	711
일반대	부모	2,774	1,019
	장학금	2,731	976
	학자금	2,728	973
	본인	2,738	983

* 비진학고졸자초임과의 차액은 비진학고졸자초임 1,755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3.2.4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률 차이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인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합에 간접교육비를 합한 값이다. 전문대는 2,362만원~2,388만원 범위에서 계상되었고, 일반대는 973만원~1,019만원 범위에서 산출되었다. 한편 교육수입 대비 총교육비의 비율로 수익률을 계산해볼 때, 전문대의 수익률은 28.5%~29.8% 수준이었으며, 일반대는 38.0%~38.9% 수준이었다. 일반대 수익률은 전문대 수익률 보다 9.1%~9.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볼 때, 전문대 수익률은 본인 방식, 부모 방식, 장학금 방식, 학자금 방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는 부모 유형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 유형, 장학금 유형, 학자금 유형 순으로 분석되었다.

Copyright ⓒ 2023 KCTRS

[표 8]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수익률

[Table 8] Economic Return by Method of Financing for College Tuition

구분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	직접교육비 (만원)[a]	간접교육비 (만원)[b]	총교육비(만원) [a]+[b]	교육수입(만원) [c]	수익률(%) [c]/{[a]+[b]}
전문대	부모	408	1,980	2,388	706	29.6
	장학금	382	1,980	2,362	689	29.2
	학자금	388	1,980	2,368	674	28.5
	본인	404	1,980	2,384	711	29.8
일반대	부모	694	1,927	2,621	1,019	38.9
	장학금	630	1,927	2,558	976	38.2
	학자금	631	1,927	2,559	973	38.0
	본인	702	1,927	2,550	983	38.6

전문대의 경우, 본인 유형은 총교육비가 높은 편이었으나 그 이상의 교육수입이 발생하여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며, 총교육비가 가장 높았던 부모 유형은 졸업 후 교육수입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결과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부모 유형은 총교육비가 가장 높았으나 졸업 후 교육수입이 가장 높은 결과로 인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전문대, 일반대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학자금 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총교육비에 비해 졸업 후 교육수입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을 기준으로 '부모', '장학금', '학자금대출', '본인'의 대상 구분은 선택적 사교육비 지출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별 재학 중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준비비, 시험준비비에 투입한 선택적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이 개인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갖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재정상태 진단 및 지원이 장학금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재정상태를 우선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등록금 조달 방식별 취업 후 임금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환언하면, 개인의 경제적 차이가 결국 졸업 후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학교육 기간에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재학 중 대학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선택적 사교육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선택적 사교육비와 졸업 후 임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취업 후 임금은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준비비, 시험준비비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등록금 지원 뿐 아니라 재학 중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선택적 사교육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선택적 사교육비를 포함한 총교육비는 전문대, 일반대 모두 부모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수입에서도 전문대, 일반대

Copyright ⓒ 2023 KCTRS

모두 부모 유형과 본인 유형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총교육비와 교육수입이 가장 높은 부모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도출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재학 중 재정적 지원과 투자가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선택적 사교육비, 특히 어학연수에 투자가 컸으며, 이는 결국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었다. 환언하면 부모로부터 대학등록금을 조달받는 유형의 학생은 높은 총교육비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선택적 사교육비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전문대와 일반대의 부모 유형은 각각 어학연수비, 자격증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높은 교육수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재학 중 사교육비 지원으로 이어지고 이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의 성과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여건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5. 감사의 글

이 성과는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2038329)

References

[1] J. H. Kim, M. S. Woo, S.W. Park, T. W. Kim, The Analysis on the Rate of Return to Education by Major,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6), Vol.25, No.2, pp.255-280.
UCI: G704-000105.2016.25.2.001

[2] S. K. Kim, The Change and Prospect of Finance of Private University on Tuition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6), Vol.25, No.2, pp.151-176.
UCI: G704-000105.2016.25.2.008

[3] E. P. St. John, M. P. Paulsen, J. B. Starkey, The nexus between college choice and persisten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996), Vol.37, pp.175-220.
DOI: https://doi.org/10.1007/BF01730115

[4] https://www.data.go.kr/data/15053501/fileData.do, Jul 9 (2022)

[5] M. J. Rah, Public Funding for Higher Education in the UK,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03), Vol.12, No.2, pp.7-196.
UCI: G704-000105.2003.12.2.008

[6] S. J. Ban, Issues and Challenges on Higher Education Finance of New Government,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7), Vol.26, No.2, pp.93-118.
DOI: https://doi.org/10.46967/jefe.2017.26.2.93

[7] K. C. Song, A Discussion about Enactment Plan of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0), Vol.19, No.2, pp.125-153.
UCI: G704-000105.2010.19.2.004

[8] S. K. Kim, Analysis of the Effect of ICL System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9), Vol.27, No.3, pp.57-76.
UCI: G704-000511.2009.27.3.019

[9] J. Y. Choi, Analysis on Relationship of University Tuition and Scholarship with University Finacne, The Journal of

Copyright ⓒ 2023 KCTRS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7), Vol.26, No.3, pp.135-159.
DOI: https://doi.org/10.46967/jefe.2017.26.3.135

[10] H. S. Lee,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National Scholarship Policy on the Reduction of the Tuition Fee Burd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20), Vol.38, No.3, pp.229-252.
DOI: https://doi.org/10.22553/keas.2020.38.3.229

[11] KEIS Emplyment Survey, Graduated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9GOMS1_DATA

Copyright ⓒ 2023 KCTRS